

한국문화와 부부갈등에 관한 연구

김 준 수 교수

(D.Min.,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국문초록

현재 한국사회의 미래를 위협하는 두 가지 문제는 낮은 출산율과 높은 이혼율이다. 특히 이혼율은 OECD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이며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다.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신 첫 번째 기관이며 사회를 구성하는 기초이다. 가정이 흔들리면 교회와 사회전체가 위기를 맞이하게 된다. 그리고 건강한 가정은 화목한 부부관계에서 출발한다. 이러한 급속한 가정파괴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해결되지 않은 갈등이다.

이 논문은 결혼한 부부의 갈등을 다루고 있다. 특히 부부의 갈등 중에서도 한국문화가 가지고 있는 문화의 특성으로 야기되는 문제에 초점을 두고 있다. 전통적인 집단주의문화를 이루고 있는 한국문화는 최근에 급속하게 개인주의 문화로 변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인간관계의 갈등이 표출되고 있다. 특히 조선 500년 동안 깊게 뿌리를 내린 유교문화는 사회의 전반적인 영역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가정의 부부관계도 유교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으며 전통적인 남편과 아내의 역할을 규정하는 원리가 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 급속하게 서구화되는 변화의 흐름을 거역할 수 없으며 부부도 새로운 역할의 규정이 필요한 시점에 있다.

이러한 급속한 문화적인 변화에 의한 부부갈등의 해결은 예수님의 복음이다. 예수님 마음을 본 받아서 그의 겸손함을 배우는 길이 근본적인 부부 갈등의 해소를 위한 열쇠이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그들을 섬기려고 할 때 많은 부부의 문제가 해소될 수 있으며 가정의 파괴를 막을 수 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갈등하는 많은 부부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화해하도록 도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이다.

중심단어 : 부부갈등, 집단주의문화, 개인주의문화, 유교, 피스메이커

I. 여는 글

최근 우리나라의 가정은 매우 심각한 구조적인 변화와 가치관의 변화를 동시에 경험하고 있다. 구조적인 변화로는 대가족제도가 도태되고 핵가족제도로 바뀌어가고 있다. 특히 산업화와 도시화는 자연스럽게 가족의 구조를 핵가족체제로 만들었다. 또한 가치관 적으로는 전통적인 유교사상에 근거한 가족의 가치관이 점차 사라지고 서구적인 개인주의 사고가 가족구성원들의 주류를 이루는 가치체계로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급격한 변화속에 대처하지 못하는 가정은 다양한 문제점들을 직면하게 된다. 특히 전통적인 가부장적인 권위주의에 길들여져 있는 세대들은 급격히 변화하는 구조적 가치관적인 변화에 적응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수직적인 권위에 근거한 가족의 구조를 수평적인 관계의 친밀감에서 오는 가족의 구조로 바꾸는 과정속에서 나타나는 많은 문제점들이 있다.

이러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현대가정의 문제는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 최근에 들어오면서 이혼하는 가정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그 여파는 심각한 사회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2004년 한 해 동안 전국적으로 31만 9백 쌍이 결혼했고 13만 9천 3백 쌍이 이혼했다. 다시 말하면 대략 2.5쌍 결혼에 1쌍이 이혼했다고 볼 수 있다. 통계적으로 91년의 총 이혼건수가 4만 8천 3백 쌍 이었던 것이 세 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이다.¹⁾ 인구 천 명당 이혼 건수를 나타내는 조이혼율도 2002년에 3.0으로 미국(4.0)보다는 낮지만 덴마크(2.8)나 일본(2.3)보다는 높다.

이혼 기독교인들의 이혼율이 어느 정도인지는 통계적으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자세히 알 수는 없으나 기독교인들의 이혼도 비기독교인 들과 비교해 볼 때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추측된다. 교회안에서 이혼한 가정을 위한 사역이 매우 필요한 시기이다. 특히 여성의 경제적인 자립이 가능해 지면서 과거에는 참고 견디며 살았던 여성들이 이혼을 통해서 개인의 자유를 찾고 삶의 질을 높이려는 추세가 높아지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가정문제의 중심에는 부부갈등이 있다. 특히 91년 한 해 동안 전국법원의 재판이혼사건들의

이혼사유 중 합의이혼의 경우 부부 간의 성격차가 전체 이혼의 83.1%를 차지하고 있다. 이것은 부부갈등이 가정파괴에 직, 간접으로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부부는 가족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이다. 부부의 갈등은 가족의 위기로 발전하고 결국 파국으로 몰고 가는 원인이 된다. 부부갈등이 이혼이라는 극단적인 결과를 초래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여러 모양의 파괴적인 양상을 나타낼 수 있다. 이러한 가정의 위기는 교회사역에 큰 영향을 주는 요소이다. 교회의 기본적인 단위는 가정이다. 그리고 가정의 기본적인 단위는 부부이다. 부부가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때에 교회도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 그러나 가정의 문제는 불신자들에게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신자들의 가정도 불신자들 못지않게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 연구는 기독교인 부부가 어떠한 갈등을 경험하고 있으며 그 갈등을 처리하는 방식을 한국문화와 연관해서 살펴보려고 한다. 이 연구의 궁극적인 목표는 기독교가정에서의 부부 간의 갈등원인과 방법에 대한 양상을 문화적으로 이해함으로써 부부갈등을 건설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II. 펴는 글

1. 갈등의 원인

갈등은 인간의 역사와 함께 항상 존재하였다. 인간의 역사는 곧 갈등의 역사라고 할 만큼 인간의 역사는 갈등의 연속이었다. 마르크스는 모든 사회의 역사는 계급투쟁의 역사라고 보고 역사와 사회가 변화하고 발전하는 동기는 이해관계가 대립될 수밖에 없는 계급간의 갈등이라고 보았다.²⁾ 또한 베버는 마르크스의 이론을 받아 드려서 갈등은 조절될 수는 있어도 결코 영원히 소멸되지는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어떻게 권력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여서 사회적인 통합을 얻을 수 있는지에 관심을 두었다.³⁾ 즉 갈등은 긍정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갈등은 사회를 분열시키고 해체시키는 부정적인 역할

도 하지만 그 반면에 인간관계와 집단들을 적응시키고 조정하게 하는 과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1) 부부갈등 대한 선행연구

부부갈등에 관한 국내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시대에 따라서 부부갈등의 원인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다. 1960년대와 70년대의 부부갈등을 일으키는 요소로 경제적인 문제가 가장 많았다. 그러나 80년대와 90년대에 이르러서는 성격차이를 갈등의 가장 큰 원인으로 들고 있다. 또한 자녀문제가 80년대에 이르러서 급격하게 대두된 가정상담의 주제가 되었다. 그리고 자녀교육과 양육이 부부갈등의 또 다른 불씨로 작용한다. 이러한 결과는 80년대에 들어오면서 국가경제의 발전으로 인하여 가정경제도 풍요로워 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가정에 경제적인 여유가 생기면서 그 동안 잊고 살았던 개인의 권리와 인간으로서의 삶의 풍요함을 누리려는 심리가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변화순은 그의 논문 “부부 간의 갈등과 해소”에서 첫 자녀가 초등학교, 중학교, 혹은 고등학교에 다니는 가정의 부인 321명을 대상으로 설문과 심층 면담을 하였다. 부부싸움의 원인과 부부갈등의 과정을 갈등의 시작, 갈등의 해결 그리고 갈등의 지속기간으로 나누어서 조사하였다. 이 조사에서도 성격 및 습관의 차이에서 오는 갈등이 제일 많았고 갈등의 시작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느낄 때가 제일 많았다. 갈등의 해결방법으로는 부인이 참는 것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나타냈다. 그러나 ‘자녀양육 및 교육’에 관해서는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는 비율이 가장 많았다. 또한 김양희는 그의 저서 “한국 가족의 갈등 연구”에서 서울 지역에 거주하는 주부를 대상으로 가족 간의 갈등을 조사하였다. 이 조사에서는 갈등을 두 종류로 나누었는데 첫째는 권력의 차이에서 오는 갈등이고 두 번째는 물질분배의 차이에서 오는 갈등이다. 이 연구에서 부부가 자원으로 인한 갈등에서는 대화를 통한 합의에 의해서 갈등을 해결하는 비율이 제일 높았다. 그리고 권위로 인한 갈등에서는 회피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갈등의 관리방법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권위로 인한

갈등은 대화나 합의로는 잘 해결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2) 이론적인 관점에서 본 부부갈등의 원인

갈등의 원인을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사회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는데 첫 번째는 기능주의 적인 관점에서 가족 구성원들 간의 갈등은 서로 다른 규범이나 각 구성원들이 감당해야 하는 역할의 불일치로 일어난다고 본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갈등이 체제 속의 억압이나 권력, 자원의 불평등한 분배로 인해 가족원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치하면서 생겨난다는 이론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⁴⁾ 서구에서의 가족과 부부관계에 대한 사회학적인 연구를 살펴보면 서구에서도 2차대전 이후에 급증하는 이혼과 가족해체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면서 본격화되었다. 이 연구는 이혼의 급증과 가족해체의 원인을 산업화에 따른 전반적인 가족변화의 결과라고 보았다. 이 변화는 전통 가부장적 친족제도의 약화로 요약될 수 있는데 '확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강력한 부계친족에서 유연한 양계친족으로, 부자중심에서 부부중심가족으로, 그리고 개인에 대한 친족의 영향력의 약화'라고 본다.⁵⁾ 가족과 부부관계 초기연구의 비관론자들은 결혼자체가 불필요한 시대가 될 것이라고 보았으나 낙관론자들은 이러한 변화를 통해서 결국 제도적 부부관계에서 우애적 부부관계로 변화하게 하며 두 사람의 인격적 만남과 정서적 안정을 강화시킨다고 보았다.⁶⁾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 우애적 부부관계는 더 많은 갈등의 요소가 될 수 있다. 핵가족 내에서의 인간관계의 범위는 부부와 자녀관계로 축소된다. 즉 부부관계가 가족관계의 중심을 차지하고 매우 빈번한 상호작용이 일어나게 된다. 대가족관계에서는 지나칠 수 있는 조그만 일들도 핵가족관계에서는 서로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갈등의 요소가 된다. 핵가족에서는 부부의 상호관계가 밀접하고 친밀하였을 때에는 원숙한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반면에 서로의 기대에 어긋나고 불만이 쌓일 때에는 갈등이 극대화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부부 간의 조그만 일에도 실망과 불만을 갖게 되고 애정의 냉각을 초래하게 하기도 한다. 결국 가정의 안정은 부부관계의 안정과 직결되게 되며 부부 간의 갈등의 요지가 더

많아지게 되었다. 갈등이론을 가족연구에 적용시킨 스프레이는 모든 사회체계 내부에서 이해의 갈등은 편재한다고 주장한다. 즉 사회에서 이성과 세대 간의 끊임없는 대결과 충돌이 계속되는데 가정은 대결과 충돌이 발생하는 주요 장이라고 본다. 그러기에 갈등이론은 결혼과 가정의 역동적 현상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도구이다.⁷⁾

부부갈등의 원인은 가족치료이론들을 통해서도 이해할 수 있다. 가족생활주기 관점에서 보면 가족발달주기 전환에 따른 스트레스가 부부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부부관계는 가족의 주기에 따라서 계속적인 변화와 적응을 요구하는 역동적인 관계이다. 가족은 일정한 주기를 가지고 단계적으로 변화하는 특성이 있다. 예를 들면 신혼 때의 부부관계는 자녀가 태어나면서 급격한 변화를 요구한다. 각자 감당해야 하는 역할도 많아지고 신혼 때의 분위기를 계속 간직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부부가 이러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했을 때에 갈등을 경험하게 된다.

부부갈등을 Bowen의 자기분리이론을 통해서도 설명할 수 있다. 건강한 부부관계는 높은 단계의 자기분리가 필요하다. 그러나 지적인 또는 감정적인 자기분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개인들은 부부관계에서 정서적 애착과 의존 관계가 부부의 경계를 불분명하게 만들며 그 결과로 부부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엄마의 과잉보호속에서 자란 아들이 결혼을 한 후에도 정신적으로 엄마에게 의존적이 되며 독립된 가정의 가장으로서 또는 건강한 인격체로서 분리가 되지 못하였을 때에 부인과의 관계를 정상적으로 형성하지 못하고 부부갈등을 경험 할 수 있다. 그 밖에 가족치료학자인 Minuchin에 의하면 가족 내에 세 가지 다른 체제들(부부체제, 부모체제, 형제자매 체제)이 존재하며 건강한 가족은 이 체제들의 경계가 분명한 가족이다. 부모체제나 자녀체제가 부부체제를 침범할 때에 부부의 관계가 균형을 잃게 되고 그 결과로 부부갈등을 경험하게 된다.

한국가족의 부부갈등의 원인에 대해서는 김용태가 “부부 간의 갈등과 그 대책”에서 부부갈등을 세 가지 측면에서 분석하고 있다.⁸⁾ 첫째는 구조적인 측면으로서 대가족제도에서 핵가족제도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가족

구조적인 변화에서 갈등이 야기된다고 본다. 즉 부자관계 중심적인 구조에서 부부 중심적인 관계로의 전환하는 과정에서 오는 갈등적인 요소를 지적한다. 두 번째로는 관계측면에서 살펴본 부부갈등의 원인이다. 대가족제도에서 핵가족제도로 변화하면서 남편과 아내의 역할과 기능이 달라졌는데도 불구하고 부부가 전통적인 역할과 지위를 고수 할 때에 또한 부부갈등이 일어난다고 하였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데올로기 측면으로서 가족체제가 변화하였지만 아직도 전통적인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지 못함으로 인한 부부갈등을 기술한다. 이 세 가지 부부갈등의 원인들은 모두 유교사상에 뿌리를 두고 있는 전통적인 한국가정이 산업화되고 도시화되는 과정을 통해서 서구적인 사고와 가족구조를 가지게 되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3) 성경적인 부부갈등의 원인

성경은 구체적으로 부부갈등의 원인을 제시하지 않는다. 그러나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을 통해서 유추해 보면 두 가지의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첫 번째는 다양성이다. 서로가 다르다는 것이 갈등의 원인이 된다. 원래 남녀의 차이점은 갈등을 일으키는 요소가 아니라 서로 보완적인 요소로 창조되었다. 성경에서 남녀는 창조의 방법과 재료에서 모두 상이하다. 이 창조의 차이는 서로를 보완하고 서로를 도와주는 배필로 대하였을 때에 온전한 하나 됨과 화합을 이룰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하나님은 아담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신 목적은 여자로서 돕는 배필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다(창 2:18). 즉 남자와 여자가 서로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하도록 우리를 지으셨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사도바울은 몸의 비유를 통해서 교회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가 보완적으로 필요한 존재임을 인식해야 할 것을 강조하였다.

또 다른 부부갈등의 원인은 인간의 죄 때문이다. 성경은 인간의 다름이 인간의 마음에 있는 정욕 또는 욕심에 그 원인이 있다고 한다(약 4:1). 아담과 하와도 죄가 들어오면서 서로에게 책임전가를 하며 서로를 비난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근원적으로 부부갈등은 인간의 죄악된 소욕에 기인한 것이라

고 볼 수 있다. 인간의 죄는 필연적으로 갈등을 일으키게 된다. 죄는 인간관계의 갈등 뿐 아니라 총체적인 모든 갈등의 근원이다. 죄로 인한 다양한 갈등이 일어난다. 첫째로 마음의 갈등이다. 사도바울이 자기속에 있는 죄의 소욕으로 인한 갈등을 보면서 원함은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음을 보면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롬 7:24).”라고 부르짖었다. 아담과 하와도 죄의 유혹이 들어오면서 그의 마음에 갈등이 생기게 되었다. 이처럼 죄는 우리의 마음속에 갈등을 경험하게 한다. 또한 두 번째로 인간관계의 갈등이다. 죄로 인하여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깨어지고 갈등하게 된다. 죄는 가인과 아벨이 갈등하게 하였으며 그 결과로 인간최초의 살인이 일어나게 되었다. 그 후에 계속해서 더욱 심화되는 인간관계의 갈등을 볼 수 있다. 또한 세 번째로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갈등이다. 죄로 인하여 조화를 이루었던 아담과 하나님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고 결국 아담과 하와는 에덴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다. 그 후에 인간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바벨탑을 쌓게 되고 하나님과 정면충돌을 시도한다. 선민으로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배반하며 불순종함으로 갈등의 역사를 이어갔다. 이러한 여러 측면의 총괄적인 갈등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온전한 화해를 하게 되며 궁극적인 문제의 해결을 하게 된다. 십자가 사건은 인간 내면갈등과 인간관계의 갈등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길이 되었다.

2. 한국가족의 부부갈등과 한국문화

한국문화를 이해하지 못하고 한국가정을 이해할 수 없다. 가정의 갈등은 곧 상반된 문화의 충돌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은 지난 반세기를 엄청난 속도로 달려왔다. 일제로부터의 해방과 6.25 전쟁의 소용돌이속에서 폐허가 된 나라에서 선진국으로의 진입을 노리는 경제대국으로 놀라운 성장과 변화를 이루었다. 이러한 경제적인 성장의 과정에는 전통적인 문화의 빠른 해체와 서구적인 문화로의 전환이 있었다. 이러한 문화의 변화는 가정구성원들에게

많은 스트레스를 주고 갈등을 야기하였다. 한국문화는 한국 가정의 부부갈등을 이해하는 중요한 자원이다.

1) 문화의 충돌과 갈등

문화는 인간의 정신 프로그램이다.⁹⁾ 마치 컴퓨터가 프로그램을 해 놓은 대로 작동이 되듯이 인간의 행동양식도 어느 정도는 각 개인이 자라온 생활 환경인 문화라는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진다. 물론 인간이 문화의 테두리를 벗어날 수 없이 결정된 존재는 아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성의 형상을 가지고 있으며 환경에 진화적인 적응의 변화 뿐 아니라 전혀 다른 창조적인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는 존재이다. 그러나 이러한 인간의 자율성과 창조적인 선택의 기능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살아온 환경의 영향을 무시할 수는 없다. 문화는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규정하고 경험을 해석하고 타인의 행동을 평가하는 해석의 틀이다.¹⁰⁾ 자신이 사물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자신의 문화이다. 그러기에 자신이 어느 나라의 어느 민족에서 어떠한 성별로 태어났으며 어떠한 시대에 태어났고 어떠한 사회의 계층에서 성장했으며 어떤 부모 밑에서 성장하였고 어떤 학교를 다니고 어떤 직장에서 일을 했는지는 모두 한 사람을 형성하는 데에 영향을 주는 문화의 단면들이다.

그러기에 문화를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단어는 학습이다. 문화는 학습에 의해서 재생산되는 특징이 있다. 인간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끊임없는 학습을 통해서 변화한다. 가장 먼저 학습의 장이 되고 또한 가장 큰 영향력을 주는 학습의 장은 가정이다. 그 후에는 학교에서 선생님과 친구들을 통해서 다양한 학습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성인이 되어서는 사회생활을 통해서 많은 영향을 받으며 산다. 이렇게 사람은 거의 누구나 수많은 집단 또는 사람의 범주에 동시에 속해있기 때문에 다양한 문화를 통한 학습을 받으면서 성장한다. 특히 태어나서 모든 사물을 이해하는 학습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는 유년기시절의 학습은 대부분 가정에서 이루어진다. 그러기에 한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가정문화를 파악해야 한다.

각 개인들은 모두 독특한 존재들이다. 서로 똑같은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 즉 서로 개개인의 독특한 문화를 형성하고 살아간다. 이러한 개인차는 저마다 독특한 기질을 가지고 태어났으며 각기 다른 가정과 사회적인 배경에서 성장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사회화되고 개인적인 문화유산을 습득한다. 개인문화는 세 가지의 결합된 산물이다. 첫째는 부모와의 사회화과정을 통해서 습득된 개인의 문화적 유산 둘째는 문화화 과정과 사회로부터의 반응에 의하여 습득된 문화적 유산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한 영향력을 수용하거나 거부하는 우리의 상호작용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개개인의 독특한 생활방식과 기준들 그리고 가치관을 발전시킨다.¹¹⁾ 우리가 각기 독특한 문화를 소유한 개별적인 존재들이지만 동시에 주위의 사람들이나 소속한 집단의 사람들과 공통의 신념과 가치 및 생활방식을 공유한다. 우리가 소속한 집단에서 느끼는 소속감은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문화의 동질성 때문이다. 이러한 문화적인 공유를 경험하는 집단속에서도 갈등을 경험하는 이유는 집단의 일원들은 서로 각기 다른 개인문화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집단에서 공유하는 문화의 동질성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서로 충돌하는 개인문화들이 다양한 형태의 갈등을 만든다. 마치 양파의 껍질을 벗기는 것과 같이 문화는 수 없이 많은 겹겹의 층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거시적인 관점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같아 보이지만 미시적인 관점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개별적인 독특한 존재들이다.

그러기에 문화가 가지는 특징이 서로 충돌한다는 사실이다. 다양한 수준의 정신 프로그램인 문화는 항상 조화로운 것만은 아니다. 지역이나 인종 또는 언어집단으로 분류되는 각각의 문화권들이 서로 충돌하는 사례들을 우리들은 자주 본다. 911테러의 밑바닥에도 두 문화의 충돌이 있었음을 볼 수 있다. 북한의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모인 6자회담에서 나타나 는 불협화음도 나라들 간에 서로 다른 문화적인 차이들이 회담의 협상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세대 간에 차이에서 나타나는 문화의 충돌도 빈번하다. 한 집안에서도 조부모, 부모, 자식의 세대가 각기 독특한 문화권을 형성하고 상호 충돌한다. 예를 들어서 노년층의 가치와 젊은층의 문화가 조화롭게 공

존하기보다는 서로 마찰을 일으키는 경우가 더 많다.¹²⁾ 남녀의 차이도 문화적인 충돌을 나타내는 한 유형이다. 각 사회안에는 여성의 문화와 구별되는 남성의 문화가 있다. 남자의 역할과 여자의 역할이 문화적으로 뚜렷하게 구분되어 있다. 즉 남자가 할 수 있는 일과 여자가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가정에서나 사회에서 각각 어떠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지에 대한 차이들이다. 그러나 이러한 남자와 여자의 문화적인 차이는 세대에 따라서 달라진다. 남자와 여자의 가정이나 사회에서의 역할도 세대에 따라서 빠르게 변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전통적인 남녀역할을 바꾸려는 사람들과 옛 역할을 고수하려는 사람들 사이에 또 다른 문화적인 충돌이 일어나게 된다.

2) 집단주의문화와 한국가정

집단주의문화에 대한 이해는 한국가정의 특성을 연구하는 데에 도움을 준다. 한국가정은 조선 500년 동안에 걸쳐서 매우 강한 집단주의문화가 가부장적 부계사회로 뿌리를 내렸다. 한국가족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부장적 부계사회의 특성을 이해해야 한다. 특히 한국은 뿌리 깊게 내린 유교의 전통적인 가치관에 의해서 강력한 가부장적인 가족체제가 부부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가부장적 부계사회의 특징은 가족구조에서 가장이 타 가족원들의 복종을 요구하는 강한 권력을 소유하게 되며 그 결과로 가족 구성원들 사이에 신분의 상하가 존재하게 된다.¹³⁾ 부부관계에 있어서도 분명한 상하관계가 존재하게 된다. 흔히 불평등한 관계를 하늘과 땅으로 비교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불평등한 관계는 대가족제도에서는 통제와 질서를 위해서 부분적으로 필요한 측면도 있었다. 전통적인 한국가정에서 부부관계의 핵심은 가족과 공동체에 대한 의무와 가정의 안정을 추구하는 것이 우선시 되었다. 그러나 핵가족제도에서는 통제와 질서 대신에 서로의 친밀한 관계가 중심이 되기에 부부갈등의 요소로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우애적 결혼의 목표는 남편과 아내의 밀접하고 만족스러운 관계이다.¹⁴⁾

그러나 전통적인 한국의 가족개념에서 부부관계는 부차적인 관계로 소홀

히 여겨지게 되었다. 즉 효를 기반으로 하는 가족의 관계는 부모를 잘 공양하고 잘 섬기는 일이 가족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었다. 이러한 사상속에서 부부관계는 단지 대를 이을 남아를 출산해야 하는 기계적인 기능을 감당하는 관계가 되었다. 이러한 불평등한 부부관계는 자연스럽게 애정을 나누는 것 보다는 단지 주어진 역할을 감당하는 기능적인 면이 강조되었다. 이러한 불평등한 관계가 8.15해방 이후에는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면의 변화가 이루어지면서 부부 관에도 변화가 올 수밖에 없었다.¹⁵⁾ 그 후에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는 급속한 핵가족제도를 이 땅에 뿌리내리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급격한 도시화 현상은 타의에 의해서 고향을 떠나면서 대가족이 해체되는 현상이 가속화되었다. 이러한 급속한 대가족제도가 해체되는 과정에서 많은 부작용이 나타나게 되었다. 가족구성원들의 사고는 아직도 전통적인 유교적이며 대가족 중심적이지만 겉으로 나타나는 형태는 서구적인 핵가족중심이 되었다. 마치 갓을 쓰고 자동차를 몰고 다니는 것과 같이 어색하고 부자연스러운 과도기적인 현상이 나타났다.

기독교가정에서의 부부관계는 전통적인 유교 중심적인 가족체제 그리고 산업화와 서구문화의 유입으로 인한 개인주의적인 가족체제 그리고 기독교적인 부부관계의 원리들이 혼합되어서 매우 복잡한 양상을 보여준다. 마치 기독교문화가 서구문화인 것처럼 오해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엄격하게 기독교정신과 서구적인 사고는 엄격한 차이가 있다. 기독교는 이기주의와 개인주의를 배척하고 이타적이고 공동체 중심적인 삶을 강조한다. 이와 같이 성경의 진리가 문화 속에 흡수되어서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안타까운 현실은 교회 안에서 성경적인 부부관계의 원리가 제시되지 못하고 유교적인 전통을 옹호하는 성경해석으로 인하여 더욱 부부관계를 혼란스럽게 하며 부부갈등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예를 들어서 예베소서와 골로새서에 기록된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해석할 때에 남편이 아내의 위에 있고 아내는 남편에게 무조건 순종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다. 즉 유교의 가부장적인 권위를 성경이 인정해 주는 것 같이 이해한다. 그러나 성

경본문의 의미는 아내가 남편보다 열등하다는 의미가 아니다. 이 당시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은 로마사회에서는 아내가 남편에게 해야 할 의무를 정해 놓고 있지만 남편이 아내에게 해야 할 의무는 없었다. 그러나 사도바울은 아내가 남편에게 해야 할 의무와 함께 남편이 아내에게 해야 할 의무를 기록함으로써 남녀의 평등한 관계에서 어떻게 서로를 섬겨야 하는가를 강조하고 있다.¹⁶⁾ 전통적인 유교문화에서 벗어나지 못한 한국가정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가르침은 남편의 유교적인 권위의를 갖게 하며 아내는 성경적인 부부의 관계보다는 유교적인 부부관계를 강요당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전통적으로 한국교회가 여성의 지위를 높여주며 여성의 사회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었던 반면에 유독 부부관계에 있어서 부인의 지위에 대해서는 기독교적인 원리를 적용하기보다는 남성 우월적인 유교적 개념을 성경해석에 도입해서 왜곡된 해석을 하고 있다. 이러한 부부관계의 적용은 부부관계의 균형을 잃게 하며 건강한 상호작용을 가로막는다. 그러나 만일 교회안에서 유교적 전통에 도전하는 방향에서 부부관계를 강조하면 부부관계의 틀이 흔들리게 되고 그 결과로 혼돈과 혼란으로 인한 부부갈등을 야기할 수도 있다.¹⁷⁾

3. 부부갈등의 대처

인간은 갈등을 일으키는 상황속에서 다양하게 반응한다. 상대방을 비난하고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공격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하고 또는 상대방과의 주장에 순응하며 뒤로 물러서기도 한다. 또는 갈등자체를 부인하고 회피하려 하기도 한다. 대화를 통해서 타협을 하거나 갈등적인 관계를 풀려고 하는 것도 갈등대처의 한 유형이다. 갈등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도 부부갈등을 해소하는데 필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갈등은 항상 존재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기에 갈등을 어떻게 대처하고 갈등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부부갈등을 비롯한 모든 종류의 인간관계의 갈등에서 매우 중요하다. 갈등대처 방식에 따라 갈등이 심화되고 극단적인 결과로 치달

을 수도 있고 또는 갈등을 통해서 드러난 문제가 건설적으로 해결될 수도 있다. 그러기에 부부갈등의 문제를 대처하기 위해서 갈등의 대처유형을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1) 부부갈등의 대처유형

갈등대처유형을 구분하는 중요한 두 축은 갈등의 관계에서 인간관계를 중요시하는가 아니면 자신의 목표를 중요시 하는가이다. 이 두 축을 중심으로 대략 다섯 가지 갈등대처 유형으로 나눈다.¹⁸⁾ 다섯 가지의 대처 유형은 공격형(Controller), 회피형(Avoider), 수용형(Accommodator), 타협형(Compromiser), 협력형(Collaborator)이다. 공격형은 목표의 성취를 제일 중요시하며 인간관계의 깨어짐은 상관하지 않는다. 그러기에 자신의 주장이 관철되는 것에 충력을 기울이며 상대방의 의사를 무시한다. 그에 비해서 수용형은 인간관계를 지키는 것이 제일 중요한 목표가 되기 때문에 자기주장은 포기하고 상대방의 의사를 무조건 따르는 경향이 있다. 회피형은 갈등상황을 파괴적으로 보기 때문에 갈등자체를 부인하고 덮어두려는 특징이 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갈등이 증폭되어서 인간관계도 깨어지며 동시에 자신의 주장도 관철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타협형은 대화를 통해서 서로가 조금씩 양보한다. 서로가 원하는 것도 부분적으로 얻을 수 있고 동시에 관계가 악화되는 것도 막을 수 있는 방법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협력형은 서로가 시간을 끌더라도 많은 대화를 통해서 양쪽이 모두 승리할 수 있는 건설적인 방법을 찾아서 갈등을 가장 긍정적으로 해소하는 방식이다. 모든 갈등대처방법들이 장단점을 가지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공격형, 수용형, 회피형보다는 타협형과 협력형이 갈등해소에 좀더 바람직한 대처자세라고 본다.

Ken Sands는 그의 저서 *The Peacemaker*를 통해서 갈등을 대처하는 유형을 기독교적인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다.¹⁹⁾ 특히 성경의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마 5:9).”고 하는 산상수훈의 명령을 근거로 해서 어떻게 기독교인들이 세상에서 평화를 만드는 자가 될 수 있는지를 성경을 토대로 설명한다. 특히 갈등의 대처유형을 세 종류로 나누어서 화평을 깨뜨리는 유형, 화

평을 가장하는 유형 그리고 화평을 만드는 유형으로 구분한다. 위의 열거한 다섯 가지 갈등대처 유형과 비교해 보면 수용형과 회피형은 화평을 가장하는 유형에 속하고 공격형은 화평을 깨뜨리는 방식 그리고 타협형과 협력형은 화평을 만드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

부부갈등의 다양한 대처유형들을 살펴보면 위에서 서술한 유형들을 모두 나타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부부갈등에서 서로를 비난하고 공격하며 심지어는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참고 살려하거나 무조건 갈등을 억누르고 표출하지 않는 부부들도 많다. 이들은 마치 갈등이 없는 것처럼 부부갈등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부부들이 자신의 갈등을 긍정적으로 표출하며 갈등을 통해서 드러난 서로의 문제점들을 건설적으로 고쳐갈 뿐만 아니라 갈등을 통해서 더욱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 가는 부부들도 있다. 이러한 다양한 갈등의 대처유형들은 한 순간에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오랜 기간에 걸친 자신의 경험과 성격 그리고 자라난 배경에 영향을 받아서 갈등의 대처유형이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한국가정안에서의 부부갈등의 대처유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통문화의 영향력을 살펴보아야 한다. 특히 전통적인 유교문화는 부부가 갈등을 대처하는 방식에도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2) 부부갈등의 대처유형과 한국문화

문화와 갈등의 대처유형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David Augsburger는 그의 저서 *Conflict Mediation Across Cultures*를 통해서 개인주의문화(individualistic culture)와 집단주의문화(collectivistic culture)가 각기 갈등의 상황에 다르게 대처하는 특징들을 나열하고 있다.²⁰⁾ 미국이나 서양문화는 개인주의 문화에 속하고 중국이나 일본, 한국을 비롯한 동양권은 집단주의문화에 속한다. 한국민족이 갈등을 인식하고 갈등에 대처하는 유형에 있어서 집단문화의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 한국이 전형적인 집단문화인 유교문화에 뿌리 깊은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집단문화의 특성이 한국가정의 부부갈등에서 많이 나타난다.

개인주의문화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의 특징은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대화를 하며 서로의 솔직한 요구를 제시하며 자신을 개방하여 문제를 직접적으로 대면한다. 그러나 집단주의문화의 특징은 간접적이고 불분명하며 조심스럽고 문제를 직접적으로 대면하기보다는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선호한다. 특히 두 문화는 갈등시 논쟁하는 방식에 뚜렷한 차이를 나타내는데 개인주의 문화는 논쟁할 때에 논쟁의 자료와 중요한 사실을 제시하고 귀납적인 방법으로 논리적인 결론을 제시하는데 비해서 집단문화는 관계 중심적이고 감정적이며 상황이나 사람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에 근거한 결론을 제시하는 경향을 보인다. 또한 개인주의문화에서 갈등은 서로 다른 목적과 일을 진행하는 과정의 차이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데 비해서 집단주의문화에서는 공격적이거나 부정적인 감정을 터뜨리거나 불만을 쏟아놓는 등 파괴적인 감정표출을 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빈번하다.

Hofstede는 집단주의문화는 주위의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 핵심적인 미덕인 것에 비해서 개인주의문화는 자기의 개별성과 독특성을 인정하고 표현하는 것이 미덕이라고 하였다.²¹⁾ 집단주의문화에서는 가정에서부터 여러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자신을 개인으로 인식하기 보다는 '우리' 라는 집단의 일부로 보게 된다. 우리라는 공동체에서 주위의 사람들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야 하는가가 가정생활의 가장 우선되는 덕목이다. 자연히 가족구성원들의 개인적인 의사, 감정, 요구보다는 가족 전체의 의사, 감정, 요구가 우선시 된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가정의 의사는 곧 가부장적인 가족의 머리가 되는 아버지의 의사이다. 자연히 아버지의 의사나 감정 또는 요구가 전체 가족구성원들에게 전가된다. 그리고 이에 벗어나는 아이는 말을 잘 안 듣는 나쁜 아이로 여겨진다. 자연히 윗사람의 의견이나 말에 반대 의사를 표명하거나 요청에 거절하는 대답을 하기가 힘들다. 집단주의문화에서 공동체의 윗사람에게 싫다고 말하는 것은 권위에 도전하는 행위이며 공동체의 조화를 파괴하는 나쁜 행동이 된다. 그러나 개인주의 문화에서는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것이 건강한 자기의 표현이며 의견 충돌

은 서로의 의사를 조율해 가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여긴다. 그러기에 가정에서도 자녀는 부모의 의견에 반대할 수 있으며 의견 충돌은 대화를 통해서 해결한다. 개인주의문화에서는 가정에서 자신의 의사를 분명히 표현하는 것과 진실을 말하는 것을 중요한 덕목으로 여긴다.²²⁾

III. 닫는 글

높은 이혼율과 저 출산 그리고 빠른 고령화는 한국사회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요소들이다. 특히 부부갈등으로 인한 가정의 불화와 해체는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한국사회가 지속적인 발전을 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사회를 지탱해 줄 건강한 가정이다. 하나님이 제일 먼저 세우신 기관인 가정이 다른 사회를 이끌어가는 힘의 원동력이다. 가정을 허무는 부부갈등은 결국 사회의 붕괴로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온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부부갈등을 한국문화를 통해서 분석해 보았다. 급격한 경제발전속에서 전통적인 문화의 붕괴는 부부갈등을 심화시키는 원인이 되었다. 그러나 한국가정에서의 문화적인 차이가 부부갈등의 원인이 되는 것은 사실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문화의 충돌로 인한 갈등의 이면에는 인간의 최악성이 있다. 오직 자신의 관점에서만 상대방을 이해하고 판단하려는 최악된 마음이 문화의 차이에서 오는 갈등을 증폭시킨다.

문화충돌로 인한 부부갈등을 승화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의 성육신적인 태도를 갖는다. 즉 나의 편협한 이기적인 속성을 버리고 상대방의 세계로 들어가서 상대방의 신을 신고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한다. 주님은 우리에게 자기중심적인 마음으로 아무것도 하지 말고 우리 자신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하였다(빌 2:3-5). 예수의 복음은 문화적인 충돌을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복음으로 마음이 새롭게 된 자는 나의 편협한 세계를 극복하고 상대방의 세계를 수용할 수 있는 용기를 준다. 복음은 초문화적인 능력으로 우리를 변화시킨다. 그 결과로 우리가 지금까지 프로그램 된 정신문화의 지

배를 벗어나서 더 높은 차원으로 도약시킨다. 이렇게 될 때에 우리는 같은 갈등의 상황에서 새로운 문화적인 해석을 할 수 있으며 새로운 반응을 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 김양희. 「한국가정의 갈등연구」. 중앙대학교 출판부. 1993. 14.
- 조 형. “가부장적 사회의 부부관계의 성격.” 「한국가족의 부부관계」. 사회문화연구소 출판부. 1997.
- 변화순. “부부 간의 갈등과 해소.” 「한국가족의 부부관계」. 사회문화연구소 출판부. 1997.
- 권희완. “부부관계의 인식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의 부부관계」. 사회연구소 출판부. 1997.
- 한남제 외 공저, 「한국가족관계의 문제」. 산 출판사. 1994.
- Ligenfelter, Sherwood G. Mayers, Marvin K. *Ministering cross-culturally*. 왕 태중 역. 「문화적 갈등과 사역」. 조이선교회. 2003.
- A. Wood, Skevington. *Ephesians: The Expositor's Bible Commentary Vol.11*. Grand Rapids. Michigan: Zondervan. 1978.
- Blake, Robert R. Mouton, Jane S. *Corporate Excellence Through GRID Organization Development*. Houston. Texas: Gulf. 1971.
- Kenneth W. Thomas. & Kilmann Ralph H. *The Thomas-Kilman Conflict Mode Instrument*. Tuxedo. NY: ICOM. Inc. 1994.
- Sands, Ken. *The Peacemaker*. Grand Rapids. Michigan: Baker. 1997.
- Augsburger, David W. *Conflict Mediation Across Cultures*. Louisville. Kentucky: Westminster/John Knox. 1992.

[후주]

- 1) 조혼인율, 조이혼율 및 재혼건수(1970-12004), 통계청의 인구동태건수 및 동태율 추이 자료
2004년에 2.5쌍의 결혼에 1쌍이 이혼한다고 해서 결혼 셋에 하나가 이혼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왜냐하면 주어진 해에 이혼이 성립되는 것은 그전부터 지속되었던 결혼이 이혼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혼율의 증가를 살펴보는 데에는 도움이 된다. 참고로 미국이 2쌍의 결혼에 1쌍이 이혼한다고 한다. 이 외에 이혼율 산출방법은 인구 1천 명당천 명당 이혼건수이다. 이 비율도 전국적으로 급격히 늘고 있다. 지난 70년대 초반 연평균 0.41쌍에서 90년대 1.13으로 급격히 늘었다. 그리고 1998년에는 2.6이 되었다. 그 후 2002년에는 3.0이 되었고 2003년에 3.5로 최고치를 기록하였다가 2004년에는 2.9로 약간 줄어드는 추세이다. 그러나 20년 이상 동거한 부부의 이혼율은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참고로 총 혼인건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는 반면에 총 이혼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기에 이혼으로 인한 가정파괴의 심각성을 예측할 수 있다. <http://kosis.nso.go.kr>
- 2) 김양희, 「한국가정의 갈등연구」(중앙대학교 출판부, 1993), 14.
- 3) 김양희, 15-6.
- 4) 김양희, 72-82.
- 5) 조 형, “가부장적 사회의 부부관계의 성격,” 「한국가족의 부부관계」(사회문화연구소 출판부, 1997), 20.
- 6) 조 형, 21.
- 7) 변화순, “부부 간의 갈등과 해소,” 「한국가족의 부부관계」(사회문화연구소 출판부, 1997), 221-2
- 8) 김용태, 부부 간의 갈등과 그 대책, 1-4.
- 9) Hofstede는 문화를 하나의 정신 프로그램으로 보았다. 정신 프로그램은 습관과 비슷한 개념으로 한 사람이 자라고 생활경험을 축적한 사회 환경 속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먼저 가족 안에서 시작되고 이어서 이웃이나 학교 지역사회 등으로 번져간다. Geert Hofstede, 차제호, 나은영 역 「세계의 문화와 조직」(서울: 학지사, 2001), 25-6.
- 10) Sherwood G. Ligenfelter, Marvin K. Mayers, *Ministering cross-culturally*, 왕 태중 역, 「문화적 갈등과 사역」(조이선교회, 2003), 16.
- 11) Ligenfelter, Mayers, 18.
- 12) 노년층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젊은이에 대한 불평은 BC 2000년 이집트의 파피루스 두루마리 종이에도 나타나며, 기원전 8세기 말의 그리스 문필가 헤시오드의 글에도 나타나 있다. 세대의 차이에서 오는 문화적인 충돌은 각 세대마다 반복되어 나타나는 지극히 정상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Hofstede, 42.
- 13) 김양희, 82-3.
- 14) 권희완, “부부관계의 인식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의 부부관계」(사회연구소 출판부, 1997), 37.
- 15) 한남제 외 공저, 「한국가족관계의 문제」(산 출판사, 1994), 25.
- 16) A. Skevington Wood, *Ephesians: The Expositor's Bible Commentary Vol.11*(Grand

Rapids, Michigan: Zondervan, 1978), 75-6.

17) 김용태, 6.

18) Robert R. Blake and Jane S. Mouton, *Corporate Excellence Through GRID Organization Development* (Houston, Texas: Gulf, 1971), 11.

Kenneth W. Thomas 와 Kilmann Ralph H. Thomas-Kilman Axis를 통해서 갈등대처 유형을 다섯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다.

Kenneth W. Thomas. & Kilmann Ralph H. *The Thomas-Kilman Conflict Mode Instrument* (Tuxedo, NY: ICOM, Inc. 1994)

19) Ken Sands, *The Peacemaker* (Grand Rapids, Michigan: Baker, 1997), 16-24. 그는 화평을 가장하는 유형 세 가지가 부인, 도피, 자살이며 화평을 깨뜨리는 유형으로 소송, 폭행, 살인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평을 만드는 유형을 여섯 가지를 열거하고 있는데 간과, 대화, 협상, 조정, 중재, 교회권징들이다. 이 여섯 가지 중 첫 세 가지는 당사자들끼리 처리할 수 있는 방법들이고 마지막 세 가지는 제삼자가 개입해서 해결하는 방법들이다.

20) David W. Augsburger, *Conflict Mediation Across Cultures* (Louisville, Kentucky: Westminster/John Knox, 1992), 28-34.

21) Hofstede, 93-7.

22) 마태복음 21장 28-31에서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포도밭에 가서 일하라는 말에 대해서 맏아들은 예라고 대답하고 가지 않았고 둘째아들은 싫다고 대답하였지만 나중에 마음을 고쳐먹고 포도밭에 갔던 아들의 비유에서 성경은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따랐다고 하였지만 집단주의문화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인도네시아에서는 첫째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따랐다고 해석될 수 있다. 그 이유는 일단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면전에서 그의 뜻을 거스르지 않고 가겠다고 말하였기 때문이다. 집단주의문화에서는 실제로 아들이 포도밭에 갔느냐는 둘째 문제이다. Hofstede, 94.

【 Abstract 】

Korean Culture and Marital Conflict

Jun-Soo Kim
(D.Min., Asia United Theological University)

The increasing divorce rate and the decreasing birth rate are two main concerns for wellbeing of the Korean society. The divorce rate is one of the highest among OECD countries. The unresolved marital conflict is the number one cause of the divorce. Home is God's first institution and foundation of the stable society. Healthy home is possible through harmonious marital relationship. This paper deals with the problem of marital conflict among married couples. Among many factors understanding Korean marital conflict, this paper focuses on the collectivistic culture to explain the marital conflict. Confucianism, the major religion of Korea in the Lee Dynasty in the last 500 years, has all the characteristics of the collectivistic culture. The Korean society has experienced rapid shift from the traditional collectivistic culture to the westernized individualistic culture in the last 50 years. The change requires new roles for the husband and wife. When couples fail to adjust to the cultural change, they tend to fail in their relationships.

The answer to the marital conflict due to the rapid cultural change is the gospel of Jesus Christ. Having the attitude of Jesus and learning his humility is the primary answer to the marital conflicts. Jesus said that we should consider others better than ourselves(Phil. 2:3). When we consider our spouses better than ourselves and respect them as the better half, many conflicts can be resolved and many marriages can be saved. The message of the Gospel is what many conflicting couples need to hear and to apply in their broken relationships.

Kye words: marital conflict, collectivistic culture, individualistic culture, Confucianism, peacemaker